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하여

— 초대 : 마루야마 코우헤이(丸山浩平)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초대의 변

시절이 하수상해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습니다. 어느덧 봄날이 가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이 이처럼 오래 영향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한국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있지만, 일본도 2020 하계올림픽이 내년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한일 간 외교나 민간 교류는 어떨까요?

지난 2017년 한일 공동으로 조선통신사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할 때만 해도 양국 관계가 아주 좋았지만 최근 들어 냉각된 분위기입니다.

양국 사이, 일선 외교관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지난 2019년 8월, 마루야마 코우헤이 총영사께서 주부산일본국 총영사로 부임하셨습니다. 한창 바쁘실 텐데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초량왜관연구회의 정기간행물『새띠벌의 메아리』창립 10주년 특집호 ‘새띠벌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대담 정리 : 편집장)

반갑습니다. 마루야마 총영사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8월에 주부산일본국 총영사로 부임하셨고, 4월 현재, 9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 대사관에 근무하신 걸로 압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초량왜관연구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에 새내기 외교관으로 서울에 부임하여 한반도 전문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유학을 포함하여 5년간 서울에서 지냈고 그 후로도 대부분을 외무성 본부의 한반도 관련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까지 두 번째의 서울 근무를 거친 후, 처음으로 부산에 부임했습니다.

한국 이외로는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에서 근무했는데, 중국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이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알게 되는 정말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부임한 부산과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관으로 한국과의 인연, 부산과의 인연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생활과 부산 생활을 비교하신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저의 임지는 대부분이 한국 또는 북한 관련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처음이지만, 서울에서 유학하던 시절, 부산이나 마산의 학생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신촌의 하숙집에서 생활했었습니다. 어학당의 텍스트 낭독 테이프와는 상당히 다른 한국어, 즉 경상도 억양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의 서울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서울에서는 친한 여자 친구끼리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과 카페의 커피를 들고 있어서 이번에 서울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여기 부산에서도 잘 볼 수는 없지만, 저희 총영사관 여성 직원들끼리 친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에게 있어서의 ‘한국’의 원점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깊은 정이나 자연의 풍요로움과 첨단 도시와의 공존은 부산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루야마 총영사님의 이력을 살펴보니, 도쿄외국어대학을 졸업하셨더군요. 그렇다면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외교관을 꿈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자신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해외 방송국 라디오 단파 방송을 듣는 것이 유행했었는데, 저도 친구들과 경쟁하듯이 각국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과 북한 양측에서 일본어 전용의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둘 다 즐겨들었습니다. 그 방송들 덕분에 초등학교에서 아직 못 배웠던 한반도의 역사나 분단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은 그때 한국 라디오 방송에서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총리 회담 당시 통역 담당

‘부산에서 서울은 볼 수 없지만 대마도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총영사님의 명언입니다. 부산일보와 대담 당시, 하셨던 말씀인데 아주 멋졌습니다.

이 말씀처럼 민간교류 측면에서는 서울에 비해 부산이 훨씬 더 활발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선박 편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관광객들이 수백만 명이라 들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영사님 입장에서 교류 증대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어쩔 수 없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 이전부터 한일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상호 왕래와 교류 활동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일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명확한 입장이 있으며, 저도 한국의 모든 분들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도록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정상도 의견이 일치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직접 관여하는 교류사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내용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서로에게 좋고 또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이나 국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일 교류의 의의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류촉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량왜관연구회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초량왜관은 200여 년 이상 일본과의 평화 교역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가사키 데지마(出島)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특히 데지마 전시관의 복원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도 나가사키의 데지마처럼 초량왜관 전시관을 꾸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에 부임하여 새롭게 인식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과 일본의 규슈 등과의 교류 역사입니다. 막연한 이미지 이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깊은 관계가 구축되어 온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놀랍니다. 이러한 한일 관계의 당시의 최첨단 역사가 한일양국에서 소중히 전해져 왔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12차례 조선통신사가 매번 방문했던 대마도가 잘 보입니다. 총영사 재임 중에 대마도를 비롯하여 부산과의 교류가 깊은 일본의 각지를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한일 교류 관련, 일전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 波高는 높다』(구로다 가쓰히로 黒田勝弘 지음). 이 책을 읽고 새삼스레 ‘易地思之’란 말이 떠올랐고, 주변 지인들에게 강추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께서 한일 교류 차원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강추! 하시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일본총영사관의 저의 집무실에는 ‘我逢人’이라는 서예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도겐(道元)이라고 하는 13세기의 일본의 승려가 찾고 있었던 스승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과의 만남, 우연한 만남은 제 업무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셨던 저서를 비롯하여 한일 양국에는 많은 훌륭한 저서가 있으며, 각각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사람과 만나는 것, 책을 통해 저자에게 배우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이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저작을 추천해드리지 않고, 다양한 만남과 우연한 만남이 저에게 의미가 있고 이 한국에서도 실로 수



많이 경험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역사에 길을 묻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량왜관은 17세기 중반부터 무려 250년간 한일 간에 평화적인 교역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한국의 젊은이들도 잘 모르고 있을뿐더러 일본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나라 젊은이들이 역사 속에서 상호 협력 사례를 찾아야 할 때, 초량왜관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본 청년들에게 좋은 홍보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초량왜관연구회”에서는 에도(江戸) 시대에 한일 양국의 외교와 무역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초량왜관”에 대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해당 교류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량왜관이 담당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자신도 충분히 의식해서 일본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관계하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의 기회에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이런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들을 통해 홍보하는 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사 김정희 글씨

일본정부 주최의 일본 방문 사업에 참가하는 한국의 대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방
일 전에 초량왜관에 대해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이 일본에서 홍보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유학 중인 일본인 유학생이
나 일본인 학교 학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기회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영사관에서도 꼭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루야마 코우헤이 영사님, 총영사관 주최 양국 교류 프로그램에 ‘초량왜관’을
소개하는 방안! 이제까지 상상 못했던 아주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일 간, 일한 간에 더욱 활발한 교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총영사님의 성실하고 진취적인 답변 덕분에 10주년 기념특집호가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총영사님의 부산 근무가 더욱 보람되고 감동적인 나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